

메시같은 이강인 멀티골...한국, 옐로카드 비상

아시안컵 E조 1차전 바레인전
 클린스만호, 3-1 승에도 '찝찝'
 손흥민·김민재 등 5개 경고
 '64년만의 우승' 걸림돌 우려
 2차전 20일 요르단과 경기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FIFA랭킹 23위)이 15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86위)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황인범(즈베즈다)이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골을 신고했고, 이강인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과 조규성(미트윌란)을 투입으로 썼고,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날개를 맡았다. 박용우(알아인)와 황인범이 중원에 자리했고 이기제(수원), 김민재(원전), 정승현(울산), 설영우(울산)가 포백 수비라인을 꾸렸다. 골대는 김승규(알사바브)가 지켰다.

전반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5장의 옐로카드가 쏟아졌다. 한국에서는 전반 9분 박용우, 13분 김민재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전반 28분에는 이기제가 옐로카드를 받는 등 초반 거친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됐다.

바레인이 몇 차례 매서운 역습도 선보이면서 한국을 압박했지만 황인범이 선제골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38분 왼쪽에서 이재성의 킥백 크로스가 상대 수비 발 맞은 뒤 손흥민을 지나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황인범에게 향했다. 황인범이 침착하게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를 갈랐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손흥민의 위력적인 슈팅도 나왔지만, 포물선을 그린 공이 골키퍼 품에 안기면



이강인(오른쪽)이 15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한국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서 1-0으로 전반전이 마감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과 바레인이 골을 주고받았다.

후반 6분 바레인 압둘라 알하사시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예열을 끝낸 이강인이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왼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다. 공은 왼쪽 골대를 스친 뒤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3분 다시 한번 이강인이 포효했다. 오른쪽

에 있던 이강인이 첫골을 기록했던 황인범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내 공은 골대 왼쪽을 뚫었고, 3-1이 됐다.

후반 35분 바레인의 프리킥 상황에서 사예드 바케르의 헤더가 나왔지만 골키퍼 김승규가 공을 품에 안으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한국은 이후 후반 8분의 추가 시간까지 실점 없이 지키면서 3-1 승리로 1차전을 마무리했다.

멀티골을 기록하며 수훈 선수가 된 이강인은 경기가 끝난 뒤 "경기 전부터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좋은 점도 있었고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더 좋은 경기,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팀에 도움이 돼서 기쁘다. 다음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리로 아시안컵을 열었지만 '옐로카드'는 한국

우승 여정의 과제로 떠올랐다.

전반전에만 3개의 경고가 나왔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발에 걸려 넘어졌던 손흥민이 오히려 할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를 받는 등 첫 경기에서 무려 5개의 옐로카드가 쌓였다.

한편 한국은 20일 오후 8시 30분에는 요르단과 E조 2차전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클린스만호에 '판정 주의보'가 내려졌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바레인에 3-1로 승리했다.

어느 대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첫 걸음을 가볍게 뒀다.

다만, 내용상 위기가 없었던 경기는 아니었다. 전반 9분부터 28분 사이 박용우(알아인), 김민재(원전)와 이기제(수원), 3명의 선수가 무더기로 옐로카드를 받아 불안감을 키웠다.

태극전사를 향한 경고 판정은 후반에도 이어졌다. 후반 16분 조규성(미트윌란)이, 후반 49분에는 '에이스' 손흥민마저 옐로카드를 받고 말았다. 한국은 바레인전에서 옐로카드를 총 5차례나



'판정 주의보' 빌미를 주지 마라

바레인전 석연찮은 판정 잇따라...조별리그 10경기서 31개 '경고'

받았는데, 이는 이란과 경기에서 6장을 받은 팔레스타인에 이어 이번 대회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까지 조별리그 10경기에서 총 31장의 옐로카드가 나와 경기당 3.1개꼴로 경고 판정이 내려졌는데 한국-바레인전에서는 이를 훌쩍 넘는 7장이 나왔다.

문제는 중국 출신 마닝 주심 판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여지가 컸다는 점이다.

경고는 덜 받았지만, 거친 파울 장면을 많이 연출한 쪽은 바레인 선수들이었다.

특히 후반전에는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이강인에게 파울성 플레이가 집중됐다. 두 선수가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나뉘는 상황이 이어졌다. 순간 부상을 우려하게 할 정도로 위험해 보인 장면도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 등 한국 코치진은 심판진을 향해 여러 번 항의했으나 석연찮은 판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마닝이) 원래 카드가 상당히 많은 주심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

에게 그리 호의적인 판정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첫판부터 클린스만호를 괴롭힌 '판정 문제'는 우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출몰할 수 있다.

아시안컵, 챔피언스리그 등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는 아시아 출신 심판으로 심판진이 구성된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심판들을 데려다 놓고 치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등 다른 연맹 주관 대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정의 질

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판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게 좋다. 언제든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경기에 임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선수 부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취지로 심판들이 적극적으로 옐로카드를 활용하는 건 세계 축구의 흐름이기도 하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판정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판정이 언제든 우리에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서 대회를 치러야 한다"며 "심판들 성향 파악도 경기 중 신속하게 하는 게 좋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동작 등은 피해야 한다. 이런 건 심판을 만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끈한 성적' 광주FC, 화끈한 팬서비스

태극 전지훈련에 구단 첫 팬 초청...참가자 12명 '꿈같은 4박6일'

팬들의 응원 속에 뜨거운 시즌을 보냈던 광주FC가 구단 첫 팬 초청 투어를 진행했다.

태극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선수단은 16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날 팬 초청 투어를 통해 태극을 찾은 팬들과의 저녁 자리가 준비된 것이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1 3위라는 구단 역대급 성적을 장식하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권까지 따냈다. 화끈한 경기력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관중석도 덩달아 뜨거웠다.

지난 시즌 광주 홈 19경기에 8만6090명(평균 관중 4531명)이 찾으면서 전년 대비 관중수가 3배 이상 늘었고, 입장권 수익도 8배 증가했다.

이에 광주는 포항스틸러스와의 2023 시즌 최종전에서 팬들을 위한 '특별 경품'을 마련했다.

광주현대병원 허정필 원장이 2000만원을 후원하면서, 광주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를 찾는 4박 6일

일정의 '무료 팬투어'를 준비한 것이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참가자는 지난 13일 무안공항을 출발해 태극으로 떠났다. 18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훈련 현장을 찾아 응원을 보내고, 선수단과 저녁 만찬도 즐겼다.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았다가 팬투어에 당첨된 김중우 씨는 "축구장에 동행한 친구들을 위해 선수 사인을 많이 받아 갈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축구장을 찾은 대학생 정주경 씨는 "시즌 초반 홈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두는 광주 축구에 반해 지난 시즌 내내 경기장을 찾았다. 이번 투어를 통해 광주 축구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빛고를 서포터즈 총무팀장으로 '올댓광주'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임민석 씨는 "감독님이 올 시즌 새로 준비한 전술이 무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팬투어에 참가한 소감을 언급했다.



광주FC 팬투어 참가자들이 지난 16일 태극 출국에 앞서 무안국제 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번 팬투어를 준비한 광주 임근훈 경영본부장은 "팬들을 위해 이번 투어를 진행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태극으로 떠난 광주 선수단은 31

일까지 치앙마이에서 1차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2차 전지훈련을 갖고, 3월 2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의 2024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오승환, 2년 22억 재계약

드디어 도장을 찍었다. '골판왕' 오승환(41·사진)이 내년에도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공을 던진다.



프로야구삼성라이온즈는 16일 "자유계약선수(FA) 오승환과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10억원, 연봉합계 12억원 등 총액 22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연봉은 전액 보장 금액이다. 성적에 따른 옵션은 없다.

다만 구단 샐러리캡(연봉 상한제) 문제로 오승환의 내년 연봉은 4억원, 내후년 연봉은 8억원으로 조정됐다.

삼성 관계자는 "오승환이 샐러리캡으로 인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1982년 7월 15일생인 오승환은 이번 계약으로 2025시즌까지 뛰게 됐고 역대 최고령 세이브 기록(임창용·42세3일)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